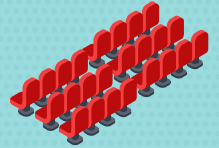


## 녹는 중(Be warmed) - 다비치



## 곡 설명

연인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상대방을 냉정하게 대하려고 얼음처럼 차갑게 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불 앞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화가 났던 마음도 스르르 풀리고 말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 가사보기

끝난 줄 알았어 친구들이 말해줬던 이별의 공식 그대로라서

Kkeutnan jul al-ass-eo Chingudeul-i malhaejwossdeon lbyeol-ui gongsik geudaeroraseo

전할 꺼났어 이대로 며칠만 버티면 난 너같은 거 잊을 줄 알았어

Jeonhwal kkeonwass-eo ldaero myeochilman beotimyeon Nan neogat-eun geo

ij-eul jul al-ass-eo

(하지만 내 안의 내가) 속삭이네, 다시 너만큼 사랑할 사람 또 없을거라고

Hajiman nae an-ui naega Soksak-ine Dasi neomankeum saranghal saram

Tto eops-eulgeorago

(여기 저기 헤매다)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고 마지막일 수는 없다고

Yeogi jeogi hemaeda Dasi naege Dol-a-ol georago Majimak-il suneun eopsdago

거짓말처럼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맘 네 앞에선 녹아내리는 걸

Geojismalcheoreom Chagapge eol-eossdeon na-ui mam Ne ap-eSeon nok-anaerineun geol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듯 너 때문에 녹아내리는 중

Chu-un gyeo-ul-eSeo Bom-euro gyejeol-i bakkwideu Neo ttaemun-e nok-anaerineun jung

## 가사보기

사르륵 사르륵 녹아내리는 중 사르륵 사르륵

Sareureuk sareureuk Nok-anaerineun jung Sareureuk sareureuk

그 땐 왜 그랬어? 지겨워서 그랬니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던거니

Geu ttaen wae geuraess-eo Jigyeo-woseo geuraessni Abimyeon baega mwonga  
jalmoshaessdeongeoni

(남자들이 그렇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안 된대

Namjadeuli geureohdae Hangsang gyeot-e iss-eojugo Jalhaejugo geureomyeon  
an doendae

(네가 좋은 걸 어떡해) 이런 날 울리는 네가 미워 욕해보고 원망하다가도

Nega joh-eun geol eotteokhae Ireon nal ulrineun nega mi-wo Yokhaebogo  
wonmanghadagado

거짓말처럼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맘 네 앞에선 녹아내리는 걸

Geojismalcheoreom Chagapge eol-eossdeon na-ui mam Ne ap-eSeon nok-anaerineun geol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듯 너 때문에 녹아내리는 중

Chu-un gyeo-ul-eSeo Bom-euro gyejeol-i bakkwideu Neo ttaemun-e nok-anaerineun jung  
gone is the winter, right? 흐느끼는 네 모습 이젠 더 난 보고 싶지 않아

gone is the winter, right? Heuneukkineun ne moseup ijen deo Nan bogo sipji anh-a

내 마음이 그대로 너에게 가 닿을 수만 있다면 아마 넌 알텐데

Nae maeumi geudaero Neo-ege ga dah-eul suman issdamyeon Ama neon altende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너 그럴 때마다 무너져 내 맘 한 칸이

geuge malcheoreom swipji anh-a Neo geureol ttaemada muneojyeo nae mam han kyeoni  
울지 마,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you're the only one, babe it's true

Ulji ma, Igeo hanaman kkok gi-eokhae you're the only one, babe it's true

거짓말처럼 차갑게 얼었던 나의 맘 네 앞에선 녹아내리는 걸

Geojismalcheoreom Chagapge eol-eossdeon na-ui mam Ne ap-eSeon nok-anaerineun geol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듯 너 때문에 녹아내리는 중

Chu-un gyeo-ul-eSeo Bom-euro gyejeol-i bakkwideu Neo ttaemun-e nok-anaerineun jung

사르륵 사르륵 녹아내리는 중 사르륵 사르륵

Sareureuk sareureuk Nok-anaerineun jung Sareureuk sareureuk

내가 바보라서 너밖에 모르는 나라서 그래서 다시 녹는 중

Naega baboraseo neobakk-e moreuneun naraseo Geuraeseo dasi nokneun jung

## 문법학습

## ★ (으)ㄴ는 줄 알았다

어떤 방법이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으)ㄴ는 줄 알았다’는 어떤 방법이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 형용사 + ‘(으)ㄴ 줄 알았다,
- 동사 + ‘는 줄 알았다  
(\*단, 끝난 줄 알았어와 같이 동사의 과거 사실에 대한 것은 ‘(으)ㄴ 줄 알았다를 사용)

1 가: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 보세요.  
나: 와, 맛있네요. 저는 미영 씨가 요리는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2 가: 이 옷은 예쁘지만 싸서 마음에 들어요.  
나: 그래요? 옷이 아주 예뻐서 비싼 줄 알았어요.

난 너 같은 거 잊을 줄 알았어는 너를 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잊지 못했다는 말과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도 ‘(으)ㄴ는 줄 알았다를 사용합니다. 이때에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 반대인 경우, 추측이 틀린 경우 사용합니다.

## ★ 는 중이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너 때문에 녹아내리는 중과 같이 ‘는 중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본래는 ‘는 중이다로 사용되는 표현을 노래에서는 ‘는 중으로 줄여서 표현하고 있지요.

1 가: 여보세요? 미영 씨, 지금 뭐해요?  
나: 다음 주가 시험이라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2 가: 배고프네요. 음식이 다 되었어요?  
나: 네, 다 되었어요. 그릇에 담는 중이에요.